

종합

영산강 하구언 공사 '반값' 남양 낙찰

2000억 공사 1000억에… 한양에 2패 후 1승

설계 뒤지고도 가격점수 앞서… 일부 덤픽 우려

남양건설이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사업(2공구)의 실시설계 적격 자로 최종 선정됐다.

최근 한양과 맞붙었던 두 차례의 수주전에서 모두 쓴 잔을 마셔야 했던 남양건설은 이번 세 번째 경쟁에 서는 설계능력 평가에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가격경쟁에서 뛰어기며 성공하면서 한양을 따돌리고 사업권을 확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2공구)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설계와 가격 등을 심의한 결과, 남양건설을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 입찰은 덤피(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

만 3번째 격돌에서는 결국 사업을 따냈다.

남양의 이번 승리는,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추정 공사비(2천52억)의 50.32%인 1천32억을 써낸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금액은 한양이 제시한 1천532억 원(20.21점)보다 무려 500억 원이나 낮은 것이다.

이번 사업의 경우 설계 점수가 70%를 차지, 설계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남양이 경쟁사인 한양을 제치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데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처럼 추정 공사비 대비 50% 수준의 가격 낙찰률을 기록한 것은 덤피 입찰 분야에서 극히 드문 사례다.

추정 가격의 절반 수준인 공사비로 인해 ‘덤피’ 수주에 따른 적자(赤

字) 및 부실 공사 우려도 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추정 공사비는 발주처인 농어촌공사가 ‘이 정도 금액은 꽤야 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제시한 금액으로, 남양은 이 가격의 절반으로 공사를 맡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정상적인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남양 측은 이와 관련 “단순 수치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배수갑문을 확장하는데 있어 세계 최초의 공법을 도입하고 기존 방조제를 이용한 공사로 800억 원 정도의 공사비와 공기를 단축할 아

이법을 찾아낸 것이 주효했으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오는 31일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영산강 하구둑 공사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산강 사업 잘돼가나

한나리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나주시 노안면 영산강 6공구 승촌보

/연합뉴스

암 사망자, 교통사고의 10배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139명 숨져… 폐암 1위

암 치료 기술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숨진 사람이 인구 10만명당 139.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지난 2008년 암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139.5명으로 암 사망률은 176.9명으로 여성 101.9명보다 훨씬 높았다. 사망원인은 암에 이어 뇌혈관 질환(56.5명), 심장질환(43.4명), 자살(26명), 당뇨병(20.7명), 만성기도질환(14.9명), 교통사고(14.7명), 간질환(14.5명), 폐렴(11.1명), 고혈압(9.6명) 순이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배 가량 많은 것이다.

암 사망률은 2001년 122.9명에서 2003년 130.1명, 2005년 133.8명,

암 중에서도 특히 폐암 사망률이 크게 높아졌다.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9.9명으로 1998년보다 9.4명이나 증가해 사망률 1위의 암으로 올라섰고 1998년 사망률 1위였던 위암은 10년간 2.9명 감소하면서 3위의 암으로 물러섰다. 폐암 사망률에 이어 간암(22.9명), 위암(20.9명), 대장암(13.9명), 체장암(7.6명), 유방암(3.5명), 백혈병(3.1명), 식도암(2.8명)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8년 암 유병률은 2.75%로 2007년 2.36%보다 크게 증가했다. 남성이 2.02%, 여성이 3.45%로 암 사망률과 달리 유병률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높았다. 여성 암은 완치가 쉬운 편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공정택 前교육감 오늘 영장 청구

공직자 재산 심사 강화

위반땐 징계 의결 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심사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형성 과정과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쟁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

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

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쟁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Rural-20 프로젝트’는 정부가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농촌의 아름다움과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21곳을 선정, 지원하는 관광개발 사업이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

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

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쟁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

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

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

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쟁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

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

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

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쟁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

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

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

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쟁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

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

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

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쟁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

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

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

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쟁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정 교육감의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

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